

목장교회 나눔지

2022. 11. 6 . 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5분/온라인모임 3분)

*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나누어 보세요.

1. 찝찝해진 날씨가 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나 추억이 있는가?
2. 나에게 깊은 영향을 남긴 책이 있다면?
3. 이번 블레싱에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장 장맛비 같은 찬양(15분/온라인모임 5분)

복	예수 예수	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찬 305장)
음	나를 지으신 주님 (지 51장)	송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새찬 272장)
성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지 495장)	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새찬 280장)
가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지 257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찬 91장)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5분/온라인모임 30~40분)

지난 한 주간 지구촌공동체성경읽기, QT(매일성경, 새벽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블레싱 2022 Just Like Jesus 26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1절**

1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죄 사회]다. 서로가 쾌락을 추구하지만, 분노가 쌓이면서 서로를 희생양 삼고 서로를 공격한다. 성경을 보면 이 정죄 사회와 비슷한 율법 사회가 등장한다. 예수님은 이 사회에서 그 법칙과 반대되는 가르침으로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본질적인 고통의 문제 즉, 뿌리 깊은 죄의 문제까지도 다루셨다.

2 그렇기에 예수님은 유대를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엣가시였다.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반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3절).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을 고소하여 제거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6절).

3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고 묻는다. 예수님은 두 가지 함정에 직면했다. 1) 만약 모세의 율법을 옹호해 돌로 치라 하면 재판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어긋난다. 2) 만약 모세의 율법에 반대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던 이스라엘 군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다.

4 군중들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성난 야수와 같이 예수님의 판결이 결정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모든 혼돈과 소음을 깨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마디를 던지신다. 7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일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 아무도 행동을 옮길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마5:27-28). 예수님께서서는 겉으로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온갖 나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6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고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 사실 거기 모인 남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권위 있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리를 떠나갔다.

설교내용

7 이제 예수님과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만 남게 되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신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신다. 여자가 대답했다. “주여 없나이다.” 여자는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고 있다.

8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침묵을 깨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할 것도 없이 여인의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을 것이다. 한의 눈물, 분노의 눈물, 수치심이 눈물, 슬픔의 눈물...그러나 그 눈물은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다른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다.

9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인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자책한다. 죄의 노예가 되어 간다. 싫으면서도 다시 같은 죄를 짓고, 용서받았으면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

10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BC와 AD로 가르쳐 준다. 오해하지 말라.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여자가 죄를 분명히 지었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이다.

11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이 무지막지 한 분”이라고 불평한다. 마치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몰아붙인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사람이 죄를 다루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사람이 죄를 다룰 때는 용서나 은혜가 없다. 법대로 한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보여 주는 것이고 인간 사회의 법과 사상이 보여 주는 것이다

12 하나님의 법도 세상 법과 동일한 면이 있다. 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고 단호하시며, 짓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지게 하신다는 것이다.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복음이다.

13 오늘 어쩌면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들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이 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도 그 간음하는 여인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4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인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이 받을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맞을 돌, 비난, 모욕,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모욕과 돌을 맞아 주신 그 주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15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을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살아오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들은 상처가 나고, 딱딱해져 마음에 참 평화가 없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바로 여러분이 맞아야 할 그 돌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맞아주셨다.

점검질문

- 점검질문** *설교의 주요 내용 점검
1.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직면한 두 가지 함정은 무엇인가?
 2.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이유는?
 3.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4. 사람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했는가?

적용질문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
 1.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2.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누구인가?
 3. 내가 간음한 여인이었다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4. 진정한 용서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 봅시다.

회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온라인모임 10분)

건강한 목장교회가 되도록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한 일과 기도할 일(부담, 근심, 고통스러운 일 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과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공동기도제목은 주보 참고/중보기도부장이 마무리기도).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온라인모임 7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목장이 선택한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 교회, 직장, 지역사회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목장교회사역 | 비전부장, 중보기도부장, 전도부장, 선교부장, 사회봉사부장, 교육부장, 기타

3 N 3 G 비 전 사 역	North Korea	◆ 통일비전 모임 - 일시: 매주일 오후 3시 20분 (분당 710호)
	Next Generation	◆ 교육목장 '2학기 부모스쿨' 안내 - 일시: 11월 5일(토), 12(토), 19일(토) 총 3주간 교육목장 유튜브로 진행
	New Family	◆ 2022 사랑의 김장축제 신청(문의: 분당031-710-9450/수지031-270-8156) - 11/6(주일)~20(주일)까지 양 채플 복지선교부 사무실 현장접수
	Great Commission	◆ 23년도 상반기 파송선교사 후보생 및 협력선교사 모집(031-710-5940~1) - 지원기간: 11/6(주일)~27(주일)까지, 지원서류 및 안내: 홈페이지 사역알림
	Global Church	◆ 글로벌 페스티벌 준비 탐방(문의: 박아침 전도사 031-710-5981) - 일시: 11/11, 장소: 수지, 분당, 참석인원: 6명
Godly Leaders	◆ 세상중보의 길 세미나(2주 과정) - 일시: 11/12(토), 19(토) 오전 9시, 수지403호, 등록: 11/9(수) 오후5시까지	

2022 지구촌교회 킹덤 프로젝트

01 M52오병이어 프로젝트: 힘겨워하는 이웃을 사랑과 물질로 함께 돕자

02 대한민국피로회복 프로젝트: 피로에 찌든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자

03 10만 감사 프로젝트: 절망에서 감사로 일어나자, 오늘 감사로 내일의 미래를 바꾸자

04 느헤미야 프로젝트: 1세대의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벽을 완성하자

05 Just Like Jesus 프로젝트: 예수님사랑, 예수님자랑

06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프로젝트: 지구촌금요 느헤미야기도회

지구촌교회 GLOBAL MISSION CHURCH

※ 기타 행사 및 사역 안내

1. 목자모임일정

수요목자훈련	11/9(수) [수지만 진행]	11/16(수) TNT	11/23(수) TNT
금요목자훈련	11/18(금) TNT	12/2(금) TNT(종강)	-

2. 블레싱 2022

11/9(수) 블레싱 향수	11/9(수) 블레싱 파워웬즈데이
분당채플 오전 11:30	분당채플 오후 8:00
강사: 일기예보 나들 (박영렬 목사)	강사: 알리 구원초청: 최성은 담임목사

▶ 블레싱 2022 전도이벤트

- 11/9(수)까지 보고서(영수증) 제출, (목장센터 또는 지구목사에게 제출)

▶ 블레싱 2022을 위한 하.잠.မ် 기도

<각 마을별, 목장별로 정해진 기도시간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블레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5지구	6지구	7지구	8지구	9지구	10지구
	11/7(월)		11/8(화)		11/9(수)	

3. 세상중보의 길 세미나(2주)

- 11/12(토) 오전9시 수지 403호, 강사: 유대연 목사외, 등록비: 2만원
 - 등록: 11/9(수) 오후5시까지 등록센터, 홈페이지(www.jiguchon.or.kr/education)
 - 문의: 교육훈련부/ 031-270-8182, 031-710-9417

4. 헌아식 신청 안내

- 12/4(주일) 3부, 4부예배 수지/분당 분당, 대상: 36개월 이하 어린이로 부모가 본 교회 등록교인
 - 신청: 11/13(주일)까지 영아촌 목사 및 온라인 링크로 신청
 - 헌아식 신청자는 11/20(주일) 오후2시, 수지 111호/분당 702호 헌아교육에 반드시 참석
 - 문의: 수지 031-270-8244, 분당 031-710-9456)

5. 지구촌평생교육원 겨울학기(43기) 모집

- 강의: 12/5(월)-2/27(월), 등록: 11/27(주일)까지 홈페이지(www.jiguchonedu.kr) 또는 방문 접수
 - 문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문의: 031-710-9313)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온라인모임 2분)

각기 다른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합니다.

[사역메모]